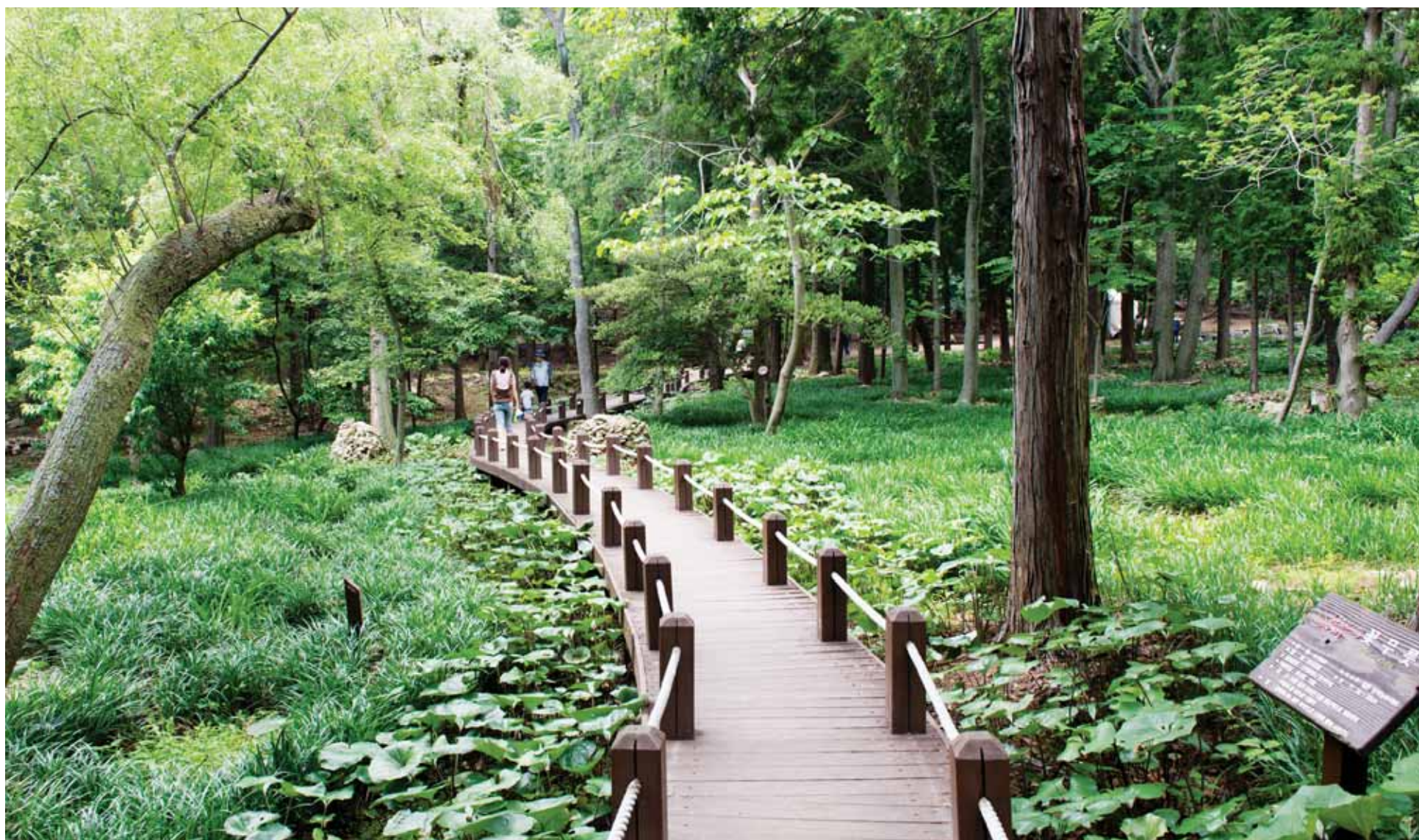


여수 봉화산 산림욕장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로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는 여수시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인 봉화산 산림욕장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풍성한 나무 숲 사이로 조성된 봉화산 산림욕장의 산책로 모습. <여수시 제공>

멀리 갈 거 있나요...올 여름 피서 '도심 숲속'으로

“올 여름 무더위 여수 봉화산 산림욕장에서 식히세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여수시의 봉화산 산림욕장이 올 여름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이곳은 도심과 바다와 가까운 숲은 관광 명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할 만큼, 숲이 무성해 여름 더위를 식히기에 안성맞춤이다.

여수시 미평동 봉화산(해발 422m) 정상에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어 봉화산이라 불린다. 지난 1930년대에 수원지를 조성하면서 주변 산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 출입을 제한했던 덕에 지금의 아름다운 자연상태 그대로의 숲을 간직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33ha 규모에 만들어진 산림욕장은 인근에 수원지를 끼고 있어 더욱 경치가 뛰어나다.

풍광 뛰어나 가족여행 인기 ‘숲 유치원’에선 다양한 체험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수상도 인근 볼거리·먹거리 다양

또 산책로가 잘 정돈돼 있고 털머위, 맥문동, 원주리, 상사화, 자금우 등 야생화도 많은 것도 이 산림욕장의 큰 특징이다.

수원지 주변으로 조성된 ‘숲속 교실’에는 평상, 사각정자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징검다리, 나무 벽 오르기 등의 놀이 시설도 곁들여졌다.

수령이 50년 이상 된 편백나무는 봉화산의 자랑이다. 참나무, 산뽕나무 등 낙엽수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다람쥐나 청솔모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근에는 오동도 등 유명 관광지도 많

다. 오동도에는 음악분수, 산책로 등 다양한 관광 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봉화산 산림욕장에서 운영 중인 ‘숲 유치원’(유아 숲체험원)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숲 유치원’ 개원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어린이들이 찾아와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숲 유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오감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봉화산 산림욕장에서 자라는 나무와 곤충, 조류, 버섯 외에 모든 자연현상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며, 자연을 소재로 만들기과 게임 등 살아있는 체험과 배움의 현장이다.

또 산림욕장 인근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는 저렴한 가격에 회를 즐길 수 있는 종횡 수산시장이 있어 관광객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한국전쟁 소재 ‘무기전시관’ 돌산읍 대울마을에 문열어

북한 무기 230점 등 245점 전시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무기 전시관 <사진>이 최근 여수시 돌산읍 대울마을에 문을 열었다.

여수시는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7억7400만원을 들여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옆 폐교를 리모델링해 393㎡ 규모의 무기 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 내부에는 한국전쟁 상황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각종 자료와 함께 북한 무기 230점과 한국 무기 15점 등 총 245점의 유물이 전시됐다.

전시공간은 ▲전쟁으로 인한 폐허 ▲서울을 잃고 남으로 ▲UN군의 참전과 반격 ▲내무반 체형 평화를 위한 노력과 평화 염원이라는 주제의 기록물과 관련 영상으로 채워졌다.

무기류로는 육군본부와 전쟁기념관 등에서 임대한 박격포와 대전차포, 기관총, 소총, 권총, 탄창, 탄약, 화생방 장비 등이 선을 보인다. 또한 무기 전시관과 함께 ‘평화 테마촌’으로 꾸며질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은 지난 1998년 31사단 여수대대에서 격침한 북한 반잠수정과 노획장비 33점을 전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무기전시관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북한 반잠수정과 더불어 전쟁과 평화의식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시 하계휴가철 관광객 유치

3일 국회 방문 관광홍보 마케팅

여수시가 하계휴가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3일 국회를 방문해 관광홍보 마케팅을 실시한다.

여수시는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에서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 향일암, 거문도 백도, 금오도 비렁길, 하화도 꽃섬길, 국가산단단지 야경, 빅오(BIG-O)소, 만성리 해양 레일바이크 등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담은 관광 명소 사진전시회를 연다.

시는 행사장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여수의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미화 여수’의 친근한 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산물 갖가지 홍보물과 관광기념품 등을 국회의원과 직원, 방문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Advertisement for Siemens Premium Service Center. Features a woman holding a baby, a Siemens logo, and text: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and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Features images of buckets of waterproofing material and text: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and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